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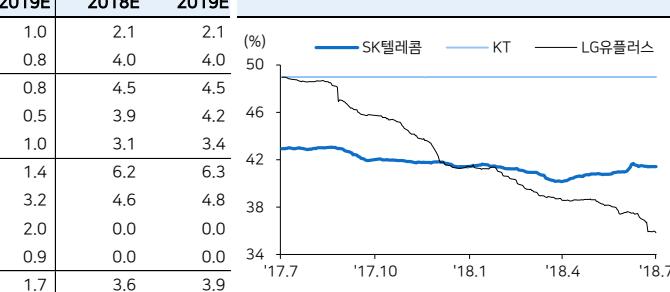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2018.7.9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2.3	-7.3	-7.0	-9.5	8.9	8.9	1.0	1.0	2.1	2.1	
통신업종	-1.9	-1.4	-0.6	-12.9	7.6	7.6	0.8	0.8	4.0	4.0	
SK텔레콤	-2.4	-1.1	-2.2	-14.5	6.3	6.5	0.9	0.8	4.5	4.5	
KT	0.5	-1.1	-0.2	-7.4	10.2	9.7	0.6	0.5	3.9	4.2	
LG유플러스	-2.5	3.0	10.1	-2.8	10.9	9.9	1.0	1.0	3.1	3.4	
AT&T	1.5	-3.4	-8.3	-14.6	9.6	9.5	1.4	1.4	6.2	6.3	
Verizon	1.2	4.7	8.4	-1.7	11.3	11.0	3.8	3.2	4.6	4.8	
T-Mobile	2.1	5.8	2.5	-6.1	18.8	15.5	2.2	2.0	0.0	0.0	
Sprint	2.9	8.9	9.3	-2.9	29.0	N/A	0.9	0.9	0.0	0.0	
NTT Docomo	-0.5	-1.0	0.1	3.1	14.3	14.3	1.8	1.7	3.6	3.9	
KDDI	1.7	2.5	11.3	8.5	13.1	12.0	2.0	1.8	3.0	3.3	
Softbank	4.0	3.5	8.6	-10.3	8.3	16.0	1.7	1.5	0.5	0.5	
China Mobile	0.7	-2.7	-2.7	-10.8	10.4	10.2	1.2	1.1	4.7	4.8	
China Unicom	-4.1	-8.8	-6.1	-13.8	27.5	17.3	0.8	0.7	1.5	2.3	
China Telecom	-1.4	-2.2	4.6	-3.2	12.2	10.9	0.7	0.7	3.4	3.7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SKT 41.4% (Flat WoW, +0.3%p MoM)
KT 49.0% (Flat WoW, Flat MoM)
LGU+ 35.9% (-0.1%p WoW, -1.8%p MoM)

SK텔레콤과 KT 외국인 지분율 유지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 전주 대비 -0.1%p 소폭 하락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7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4%p 수익률을 기록하며 Marketperform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통신주 역시 특별한 모멘텀 없이 약세 기조 유지
통신 3사 모두 무난한 2Q18 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상대적 개선 여지가 높은 LGU+ 관심 증가
국내 기관은 KT, LG유플러스 순매수, 외국인은 LG유플러스 순매도

금주 전망

2Q18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신규 데이터 요금제가 금주 출시 예상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에 LGU+와 KT는 이미 지난 2월, 5월 데이터 혜택을 늘린 신규 요금제를 출시 SK텔레콤 역시 새로운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위해 현재 과기정통부의 인가 절차 중인 것으로 파악 2Q18 실적 발표 이전까지 실적 개선 및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LGU+의 양호한 주가 흐름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1	2	3	4	5 과기정통부, 2018 출입기자 워크숍	6	7
8	9	10	11	12	13 SK텔레콤 신규 데이터 요금제 출시(예상)	14

3 주간 뉴스

▶ 알뜰폰 전파사용료 15개월 추가면제...이후는 낮추는 방안 거론

(전자신문)

-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등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키로 합의
- 알뜰폰 업체들은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201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전파사용료가 면제
- 임법화될 경우 사업자들은 1년 3개월 동안 300억 가량의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
- ⇒ 가입자 수 증가율 둔화와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힘들어 하던 알뜰폰 업체들은 한숨을 들린 셈
- ⇒ 2020년부터는 이통사 대비 낮은 ARPU를 고려하여 전파사용료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

▶ 알뜰폰 망도매대가 7월 협상...인하 요구 받아들여질까

(코끼리뉴스)

- 7월 망도매대가 협상을 앞두고 알뜰폰 업계는 지속적으로 도매대가 인하를 요구 중
- 알뜰폰 업체에 따르면 현행 도매대가는 소비자 대비 3배, 기업 고객 대비 6.5배 가량 비싼 상태
- 또한 4G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기존 수익 배분 방식에서 원가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중
- ⇒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인해 고전하는 이통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냉담한 반응
- ⇒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협상을 상반기 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

▶ LTE 원가 공개 연기...‘영업비밀’ 공개 여부 변수

(전자신문)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일 “롱텀에볼루션(LTE) 원가 자료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힘
- 이에 따라 LTE원가자료 공개는 다음 청구자인 참여연대가 청구한 날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함
- 한편, 참여연대는 LTE사업비용, 인가 적정성 심의 자료, 요금산정 근거 등을 청구 대상에 포함
- ⇒ 대법원은 4월 공개 판결에서 ‘영업비밀’은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 취지를 밝힌 바 있음
- ⇒ 청구 대상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

▶ 망 중립성 폐지 영향? 미 이통사, 관리수수료 잇달아 인상

(IT조선)

- AT&T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관리 수수료를 인상(2017년 76센트 → 2018년 6월 1.99달러)
- 스프린트 역시 1.99달러였던 관리 수수료를 연초 2.5달러(2790원)로 인상. 버라이즌은 동결
- WSJ에 따르면 AT&T는 이로 인해 연간 9억7000만달러(1조820억원)의 추가 매출을 거둘 전망
- ⇒ AT&T는 또한 6월 초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가격을 5달러 오른 45달러로 인상한 바 있음
- ⇒ WSJ는 AT&T의 이러한 움직임이 Time Warner 인수로 인해 늘어난 부채때문으로 파악

▶ 북한, 인프라 지원 엇갈린 시각...SKT ‘모바일’ vs KT ‘위성’

(Digital Times)

- 6일 통신업계는 북한의 SOC 실사를 진행할 때, 통신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
- 한편, 통신분야 협력 방안을 두고 SK텔레콤은 모바일 방식, KT는 위성 전략을 앞세움
- 사업자들은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구 분포, 지형 등 제반 정보가 부족함을 공통적으로 지적
- ⇒ 대북사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시작: SKT는 2일 전담조직 신설, KT 역시 5월 TF신설
- ⇒ KT는 이미 개성공단 내에 통신 인프라와 함께 북한 당국으로부터 임차한 1만m² 부지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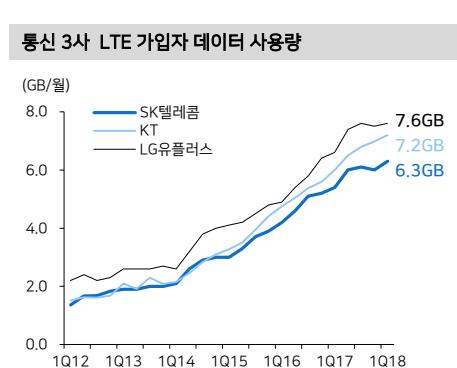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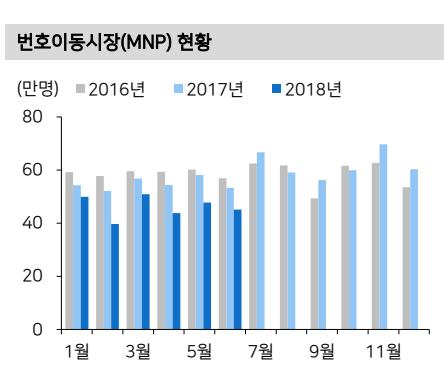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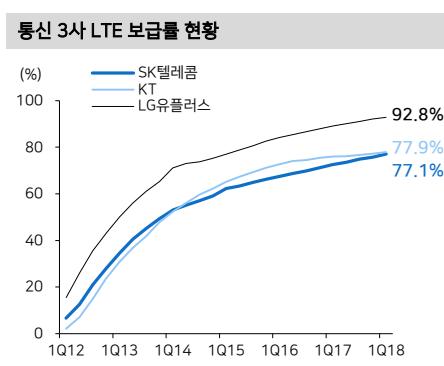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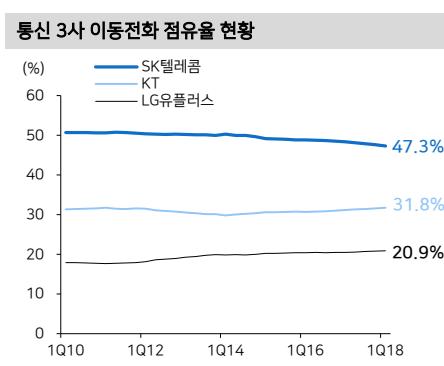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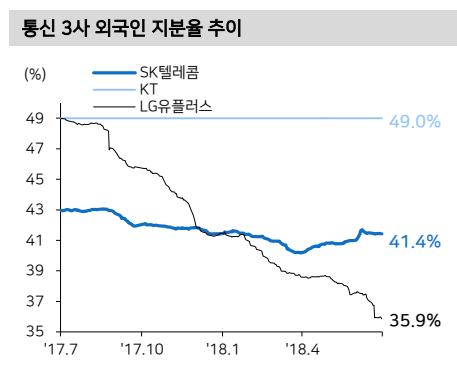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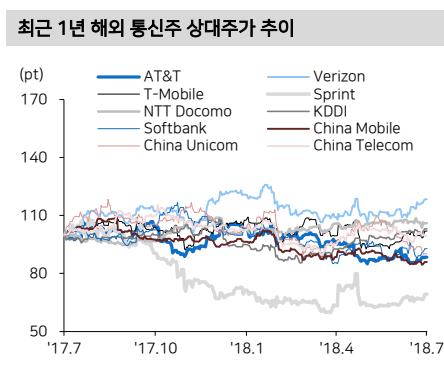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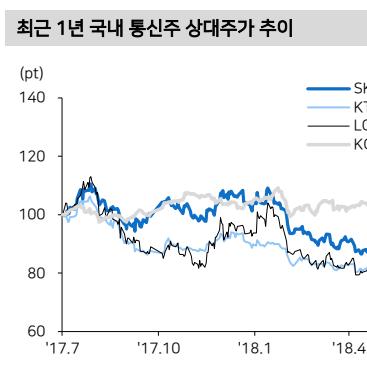
▶ 인가 기다리는 ‘최태원 요금제’...‘고객+보편요금제, 다 잡을까’

(머니투데이)

-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위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절차를 밟는 중
- 경쟁사 대비 데이터 제공량은 적지만 이른바 ‘제로 레이팅’ 서비스를 확대하는 요금제 준비 중
- 제한된 주파수 대역과 타사 대비 약 2배의 가입자 수로 인해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한계
- ⇒ 2월 LG유플러스는 8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5월 KT는 6만원대 100GB 요금제 출시
- ⇒ 업계 최대 이슈인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상업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27,500	16.5	15.4	15.7	1.2	1.3	2.6	2.5	4.2	4.3	4.9	4.8	15.0	13.1
	KT	27,550	6.4	21.0	21.3	1.2	1.2	0.6	0.7	4.3	4.3	2.6	2.5	5.6	5.8
	LG유플러스	13,650	5.3	11.0	11.3	0.7	0.8	0.5	0.5	2.3	2.4	3.5	3.3	9.9	10.0
미국	AT&T	32.7	239.4	159.5	162.3	32.7	31.1	21.5	22.6	51.3	52.0	6.9	6.8	15.2	16.5
	Verizon	51.5	212.7	129.4	130.7	30.0	31.0	18.8	19.5	47.4	48.5	7.0	6.8	40.3	34.8
	T-Mobile	61.1	51.8	43.1	45.3	5.4	6.1	2.8	3.3	11.8	12.8	7.0	6.5	12.3	12.3
	Sprint	5.6	22.6	32.4	32.7	2.6	2.4	5.5	-0.2	11.1	11.4	4.9	4.8	14.1	-0.4
일본	NTT Docomo	2,809	96.2	44.2	44.0	9.1	9.2	6.7	6.4	13.9	14.0	6.7	6.5	12.6	12.0
	KDDI	3,082	70.6	45.8	47.0	9.0	9.3	5.3	5.6	14.1	14.5	5.9	5.7	15.6	15.8
	Softbank	8,293	82.6	83.8	84.1	11.6	10.9	9.9	4.8	25.0	24.5	8.7	8.8	22.0	9.3
중국	China Mobile	69.6	181.6	114.3	117.7	18.2	18.5	17.3	17.7	41.7	43.0	2.7	2.6	11.6	11.3
	China Unicom	9.4	36.7	42.6	44.9	1.6	2.5	1.3	2.0	13.3	14.2	3.1	2.9	2.8	4.4
	China Telecom	3.6	37.3	57.4	59.6	4.4	4.9	3.0	3.4	15.8	16.5	3.1	3.0	6.1	6.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7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7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법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